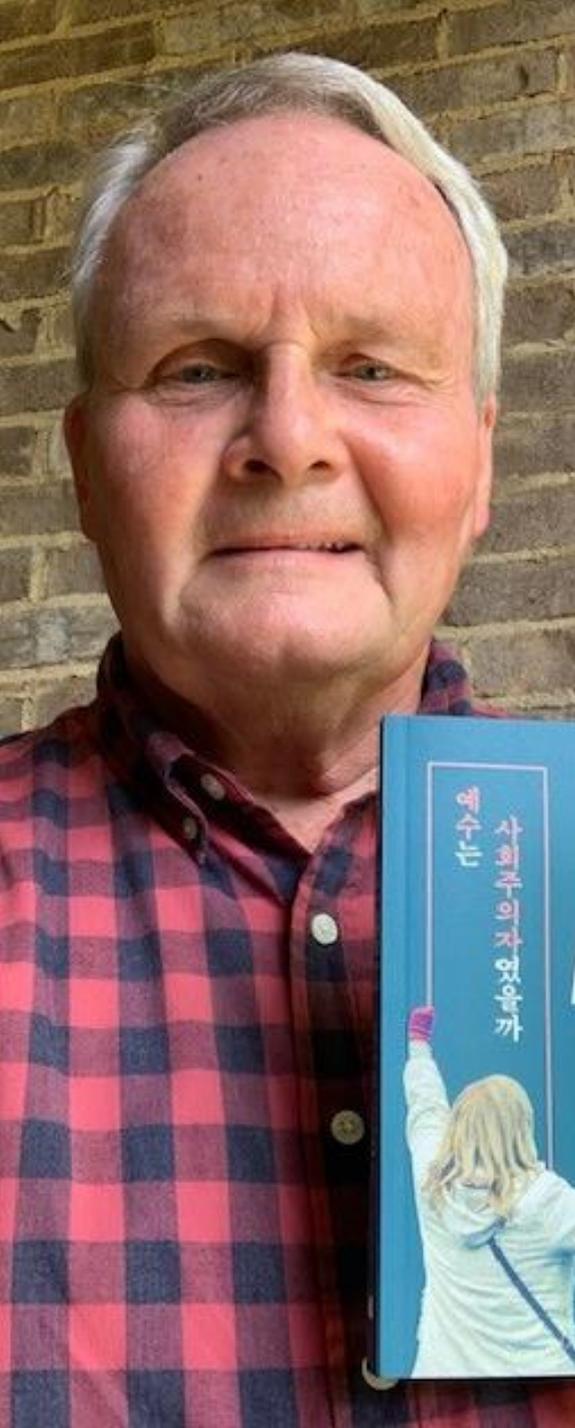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고?

K-Con스쿨 독서클럽

조평세 트루스포럼 연구위원

2021년 9월 13일, 27일



왜 결정은 국가가 하는 가난 나의 몫인가



로렌스 리드

경제교육재단(FEE) 회장
FEE는 1946년에 세워진
자유시장경제 옹호기관
(한국은 자유경제원)
경제학 교수, 공산권 기자
1000여개 칼럼, 200회
라디오방송, 매년 75회
이상 강연
크리스천

<예수전>(2009)

"자본주의에 적응하고 자본주의를 지지하면서 예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하는 건 모순이다. 예수의 이웃 사랑은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려는 태도, 즉 사회주의적 태도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204쪽).

바리새인이란 "고통 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변혁이 아니라 동정과 시혜의 방식으로 접근하여 고통의 구조를 영속화 하는 저명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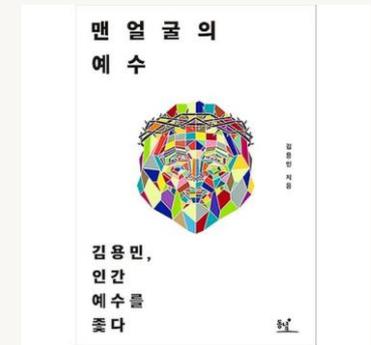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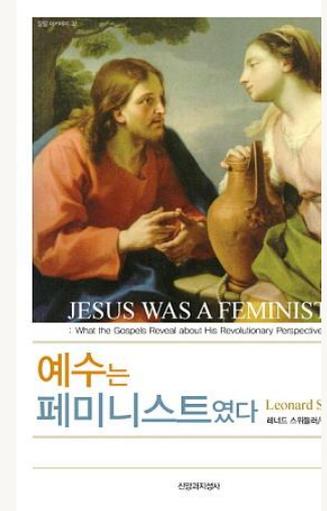
"고통의 근원인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려 하지 않고 체제 안에서 변화를 꿈꾸는 사회운동가가 바리새인"

"진정한 기독교인은 가난한 이웃을 돌볼만한 여유가 있는 "선량한 자본주의자"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철저한 악의 체제임을 깨닫고 이를 바꾸려는 일에 헌신하는 "특별한 사회주의자"가 진정한 예수 따르미"

"자본주의는 예수가 반대하던 악의 체제 바로 그것"



예수와 기독교의 가르침을 현대 세속 유행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들



중공의 성경 “공산화” 12개 핵심가치관 (24방침)

‘민주’는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에 상응한다.

‘문명’은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자유’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법치’는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사회주의의 식지 않는 “인기”

18-29세 미국인 성인 중 55%가
사회주의에 호감 (2016)

30세 이하 미국인 유권자는 버니
샌더스 선택

“대통령 후보 중 샌더스가 가장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

18-39세 미국인 중 절반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살기를 희망“

밀레니얼 세대 70% “사회주의자에게
투표할 것“ (2019)



사회주의의 정의

대중 인식 - “사회적”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자선” “사회성 좋은 것” “사회복지” “재산을 공유하는 것”
“사유재산의 폐지와 생산수단의 국유화”

“생산과 분배와 교환의 수단이 공동체 전체에 의해 소유되거나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회구성에 대한 정치경제이론” (옥스포드 사전)

“민주적 사회주의” - “사회주의를 투표로 선택” (나치, 짐크로우, 베네수엘라)

그들의 반복된 후렴 -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움직이는 표적” “젤리에 못을 박는 것과 유사”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

“북유럽 사회는 큰 복지국가를 만들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0세기 중반에 이미 낮은 세금을 가지고 있는 작은 복지국가들을 자유시장체제와 결합시키면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상태였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북유럽의 너그러운 복지국가들은 심각한 복지 의존성을 낳고 점차 기존의 강한 책임기준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의 성공기반을 침식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뿐 아니라 큰 국가가 가져온 성장 저해효과는 북유럽 국가들로 하여금 다시 서서히 복지를 줄이고 시장을 개혁하며 세금을 줄이게 했습니다.” (스웨덴 학자)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이 북유럽 모델을 일종의 사회주의로 연관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덴마크는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결코 아닙니다. 덴마크는 시장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덴마크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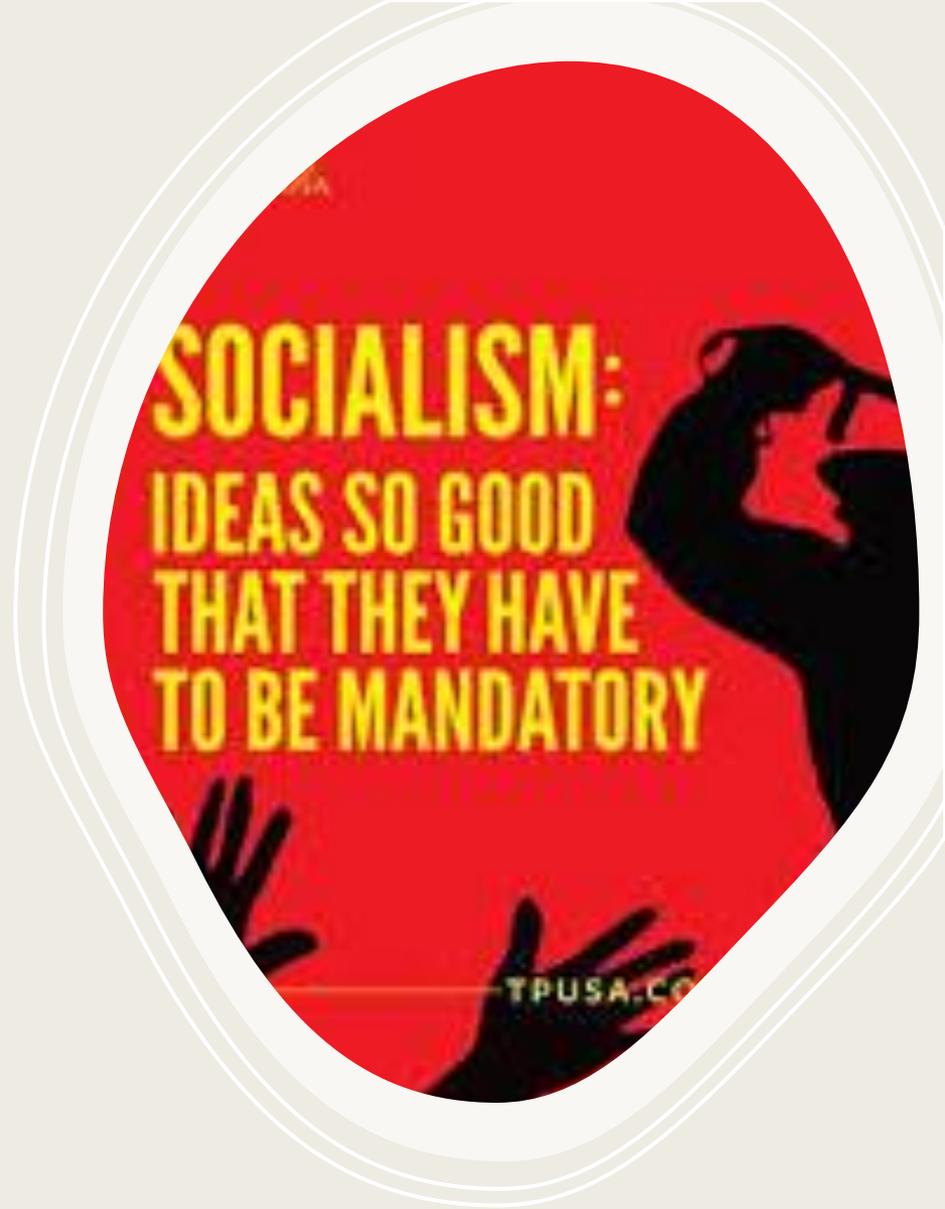
북유럽 경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성이 아니라 그들이 파괴하지 않은 자본주의 때문에 성공적인 것”

사회주의의 본질은 무력에 의한 강제력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는 바로,
사회주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반면, 자유주의는
자발적 사회주의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것

“자발적” 사회주의는 모두 실패
(필그림, 오웬파)

“생산수단의 국가통제” “중앙정부
권력 집중” “중앙경제계획” “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평준화와
재분배”



사회주의의 뿌리 - 그 악마적 실체

18세기 말 프랑스혁명 당시

“마르크스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자”

: 프랑수아-노엘 바뵈프 (Babeuf)

“l’HSD” (“l’homme sans Dieu)

<무신론 사전> 편찬

문명의

‘비기독교화’(dechristianization)

교회 -> “인간이성과 철학의 신전”

‘기독교를 대체하는 새 종교 건설’



마르크스의 악마적 실체

본(Bonn) 대학에서 '신학' 교수 브루노 바우어와 함께
<무신론 기록> 잡지 창간

사치와 향락으로 부모 재산 탕진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고 장례식 불참

“자본에 대해 쓰지만 말고 자본을 좀 만들어 왔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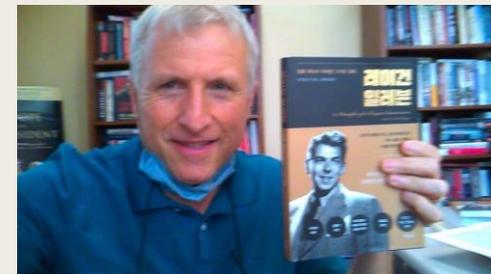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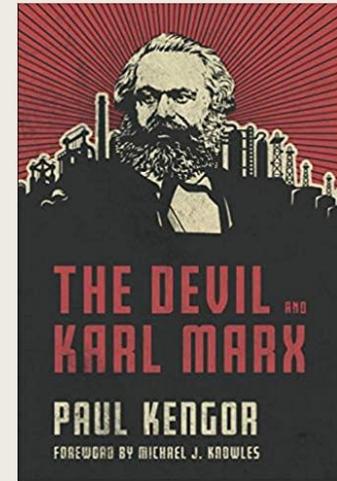
아내를 저주하고 장례식도 불참 / 아내 상속재산 갈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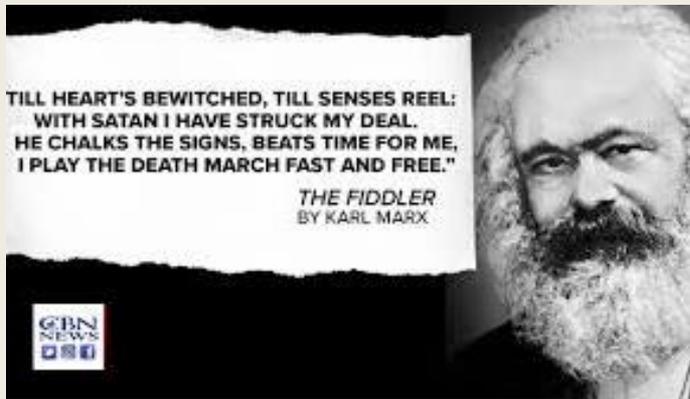
가정부를 학대하고 유린해 사생아 출생

엔겔스에게 돈 타서 사치생활 (엔겔스도 부모 상속)

매우 불결한 위생관 (절대 안 씻어, 온몸에 종기가득)

공산주의 사상 외에 수많은 연극과 희곡 집필 (Player,
Fiddler, Oulanem, ...)





TILL HEART'S BEWITCHED, TILL SENSES REEL:
WITH SATAN I HAVE STRUCK MY DEAL.
HE CHALKS THE SIGNS, BEATS TIME FOR ME,
I PLAY THE DEATH MARCH FAST AND FREE."

THE FIDDLER
BY KARL MARX

GBN
NEWS

“심장의 마법에 홀리고,
감각이 혼미해질 때,
나는 사탄과 거래를 했네.

그가 신호를 보내고
나에게 시간을 치면, 나는
재빨리 죽음의 행진곡을
자유롭게 연주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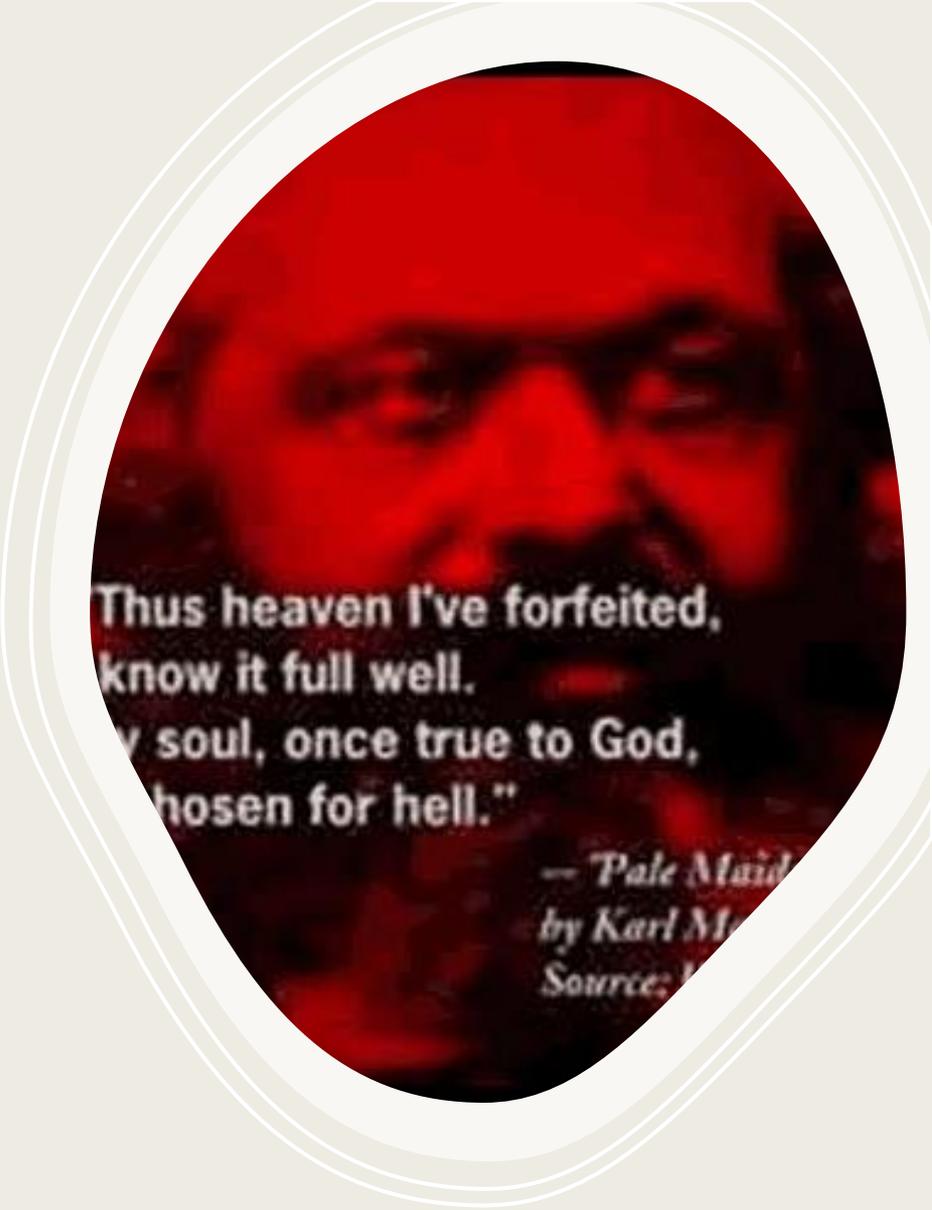
- 칼 마르크스

“The Fiddler”
(바이올리니스트)

“이것으로 나는 천국을 박탈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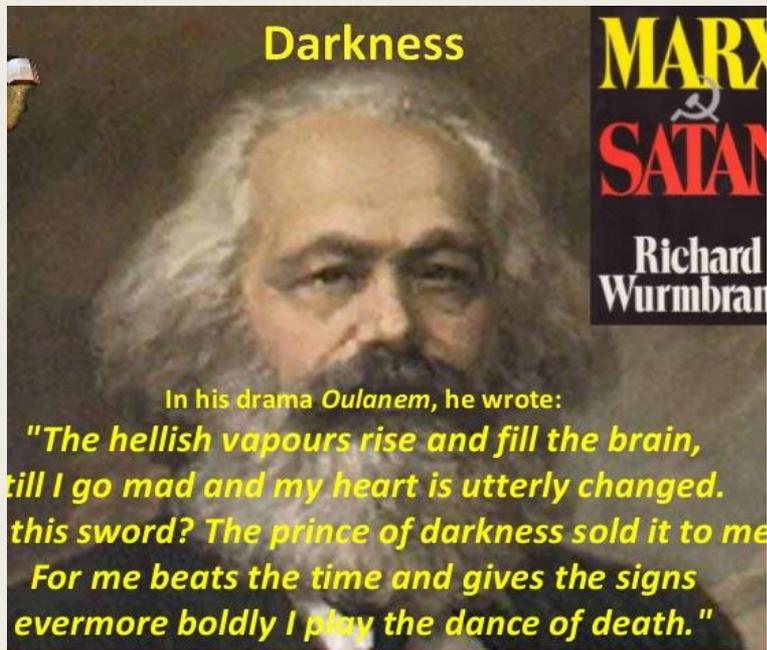
한 때 하나님께 진실했던 내 영혼은,
이제 지옥을 위해 선택되었다.”

- 마르크스의 “Pale Maiden”
(창백한 소녀)



Thus heaven I've forfeited,
I know it full well.
My soul, once true to God,
Is chosen for hell.”

— *Pale Maiden*
by Karl Marx
Source: [http://www.marxist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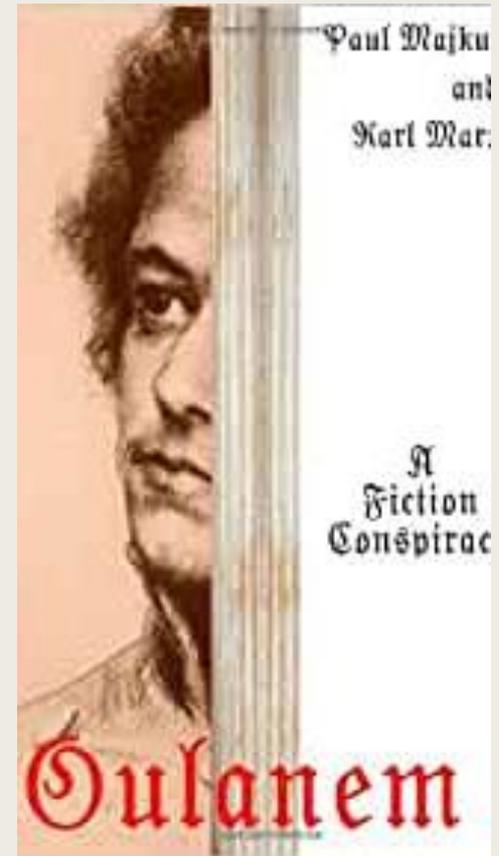
희곡 '울안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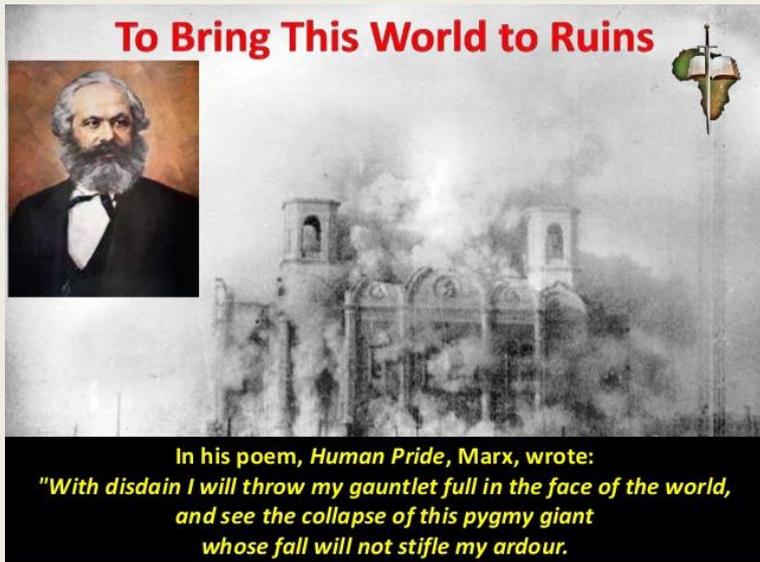
“지옥의 수증기가 일어나며
나의 두뇌를 채우네
내가 미쳐서 나의 심장이
완전히 바뀔 때까지.
이 검은 어둠의 왕자가
나에게 팔았다네.

“파멸, 파멸...

나는 생명의 절규와 함께
온 인류에 저주를 건다네...
어둠 속에서 지옥의 틈새가
우릴 향해 동시에 열렸구나,
당신이 떨어지면 나도
웃으며 뒤따르리.

그리고 당신의 귓전에
‘아래서 만나자’고 속삭이리.
만약 모든 걸 삼켜버리는
존재가 있다면,
나는 주저 없이 뛰어들어
이 세상을 파멸시키리라.”





“경멸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 세상에 도전하네.
세계라고 하는 얼굴에
갑옷을 던져, 이 거대한
난쟁이의 붕괴를 지켜보리.
그러나 이놈의 붕괴는 아직
나의 희열을 진정시킬 수
없구나. 나는 신처럼
폐허가 된 왕국을 빠져
나가 개선하리라. 나의
말은 구절구절 불(火)과
업(業)이니, 나는 조물주와
동등하다고 느낀다네.”
(Human Pride)

마르크스의 두 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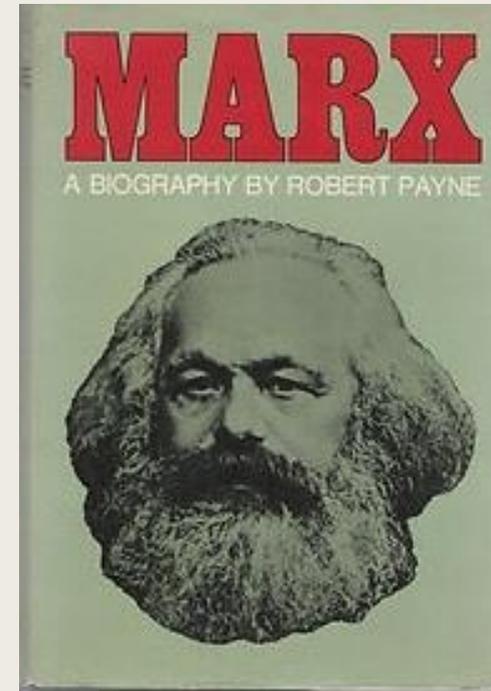
남편과 동반자살 (음독) -
마르크스의 저작 아이디어를 얻음

마르크스는 두 사위에 대해 “to hell
with both of them”

쿠바 혼혈이었던 한 명에게는
“Negrillo”

“결혼은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낭비”

“가정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공산주의 선언” (1848)

원래 제목: “공산주의 신앙고백”

첫 문장: “어느 유령(귀신)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바로 공산주의의 유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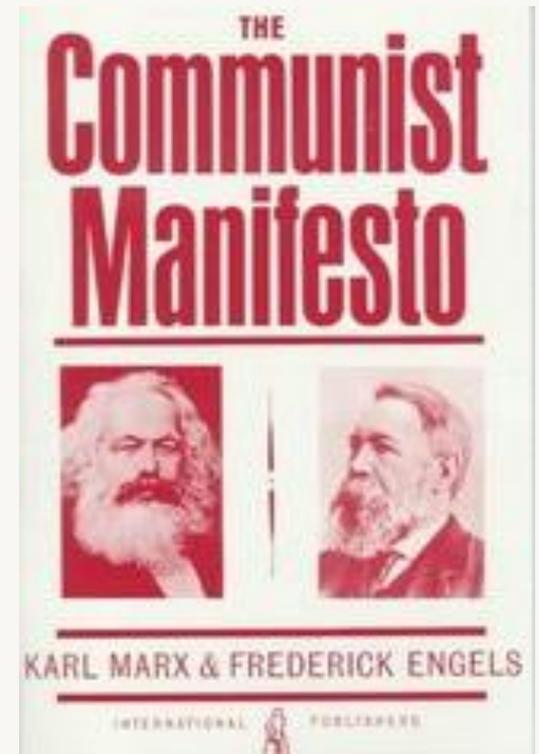
10단계 계획:

“땅 소유의 폐지- 토지공유화” “높은 소득세, 누진소득세” “모든 유산의 폐지” “모든 이민자들의 재산 몰수” “모든 자본의 국유 독점” “모든 통신교통의 국유화” “가족의 폐지” ...

마지막 문장: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존재하는 모든 사회상태의 무력 타도“

“지배계층은 다가올 공산혁명에 두려워 떨라“



<공산주의 선언>의 “폐지 대상”

모든 사적 소유

가정 (남, 녀,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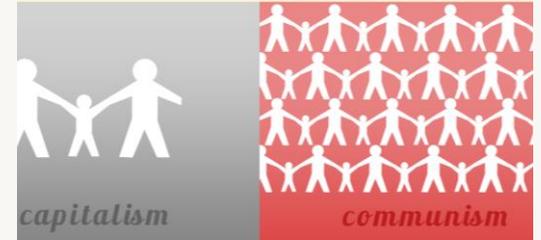
개인성 (모든 사익은 공익으로 환수,
“one for all, all for one”)

영원한 진리 (종교, 도덕, 자연법)

민족국가 (국가정체성, 국제공산주의,
Globalism)

과거 (역사) - “부르주아 사회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현재가 과거를 지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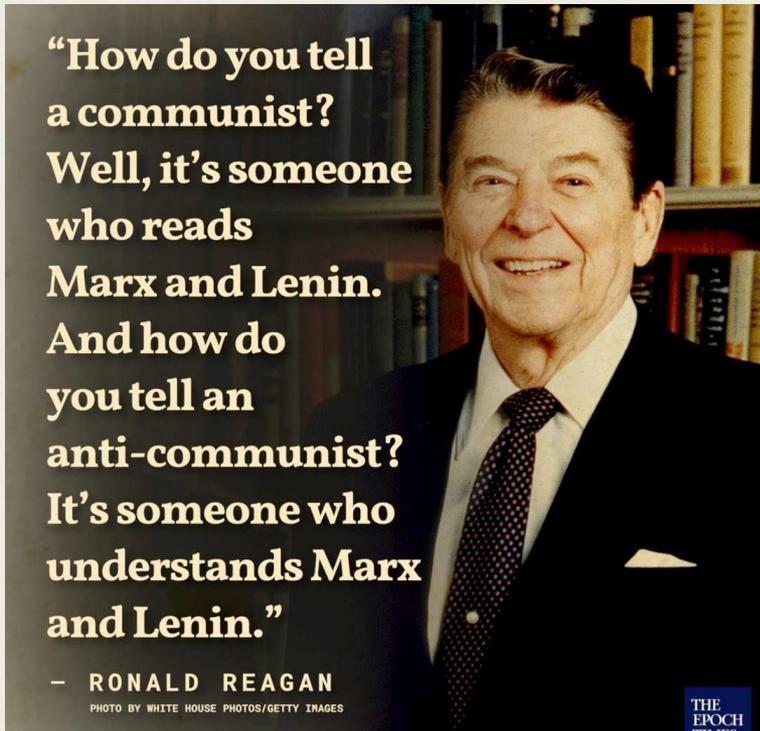
Communist Abolition of the Family



The first requisite for
the happiness of the
people is the abolition
of religion.

-Karl Marx

www.quoteslyfe.com



“공산주의자는 마르크스를
읽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아예 안 읽어본 사람!

제 정신의 사람(특히
기독교인)이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고 공산주의를
찬양할 수 없음”

- 폴 켄고르

마르크스 주변인들의 증언들

“Monster of ten thousand devils” (엔겔스)

“Governed by a demon” (그의 아버지)

“친애하는 악마님“ (그의 아들)

“사악한 악당” (그의 아내)

“젖은 악귀” (그의 친구)

“Possessed by Demons” (Robert Payne)

“Satan-worshipping” (범브란트)

마르크스의 세계관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자비한 비판”

-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이론’

괴테의 <파우스트> 심취,

- 메피스토펠레스를 종종 외워 읊거나 노래

- “존재하는 모든 것은 파괴해야 마땅하다”

“공산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전통적 관계의 단절을 위한 혁명“

“존재하는 모든 사회상태의 강제적(무력, forcible) 타도(전복, overthrow)”

“종교는 인민대중의 아편”

“모든 비판은 종교(기독교)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

“무신론이 시작되는 곳에서 공산주의가 시작”



파리코뮌 (1871)

당시 구호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무신론은 마르크스주의, 그리고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마땅히 불가분한 요소이다.

“현대 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 계급에 대한 억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無産大衆)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형 교회부터 파괴해야 한다”

“모든 신앙은 시체성애와 같아”

- 레닌



레닌, 트로츠키, 스탈린의 “League of Militant Godless”

소련 구호 “땅에서는 자본가들을,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축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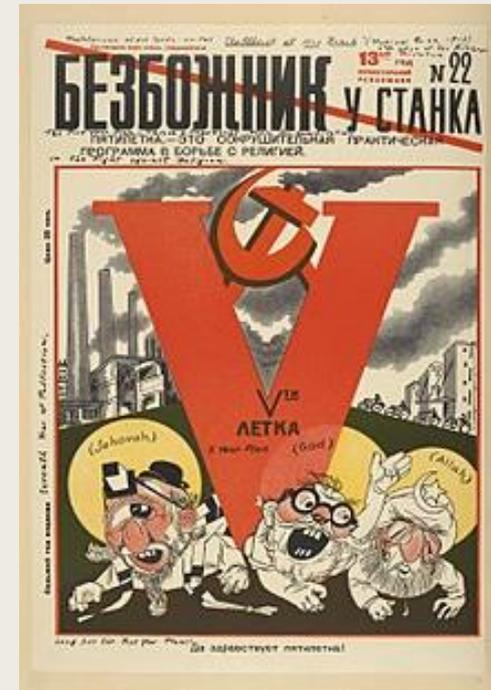
반종교 프로파간다 조직 구성

수 만개 교회 파괴

15만명의 성직자는 처형하거나
시베리아 수용소로

수십 만의 수녀들은 강간 후
창녀들과 함께 수용

1932년에는 “무신론 5개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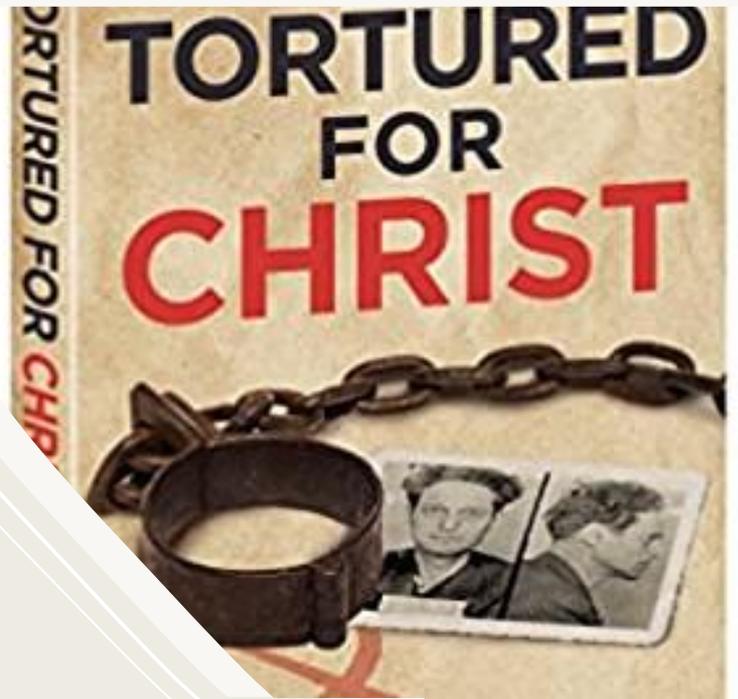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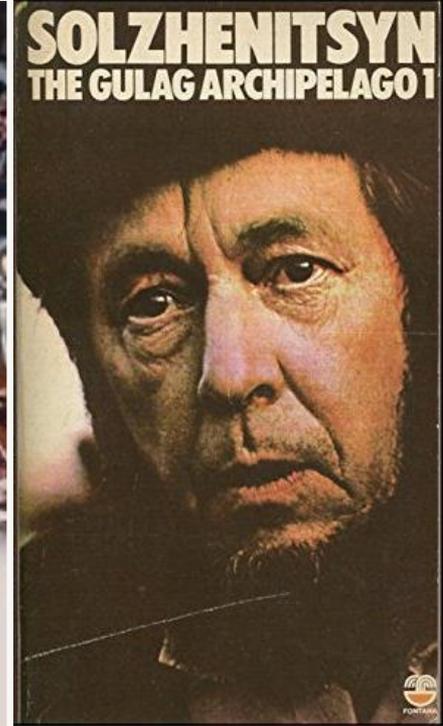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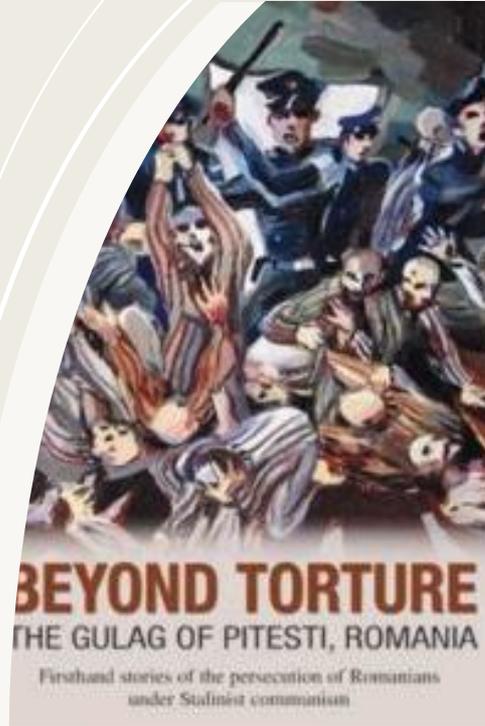


무수한 증언들

성직자 유린, 강간, 신성모독
강요, 성고문

...

“마르크스와 레닌의 철학은 ...
하나님에 대한 증오가 그 가장
중요한 추진력” (솔제니친)



공산주의 흑서 (1993)

보수적으로 추산한 공산주의 희생자
한 세기동안 약 1억 명

소련 2천만

중국 6천5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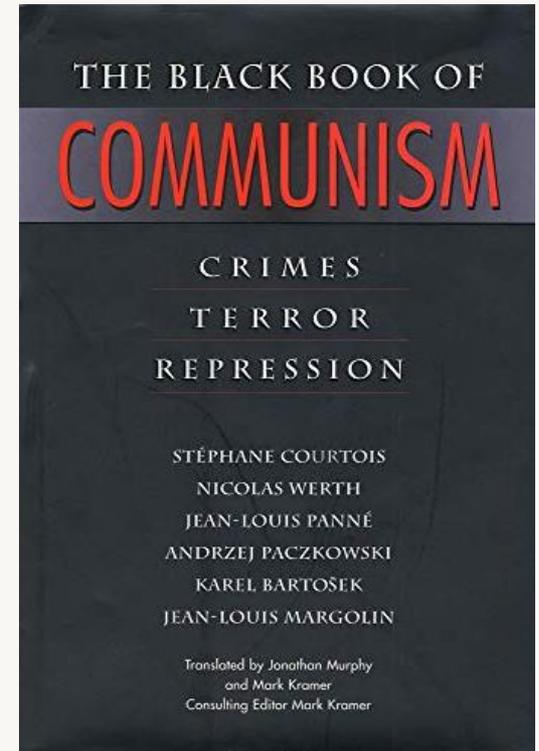
베트남 1백만

북한 2백만

캄보디아 2백만

동유럽 1백만

남미, 아프리카, 아프간 3.4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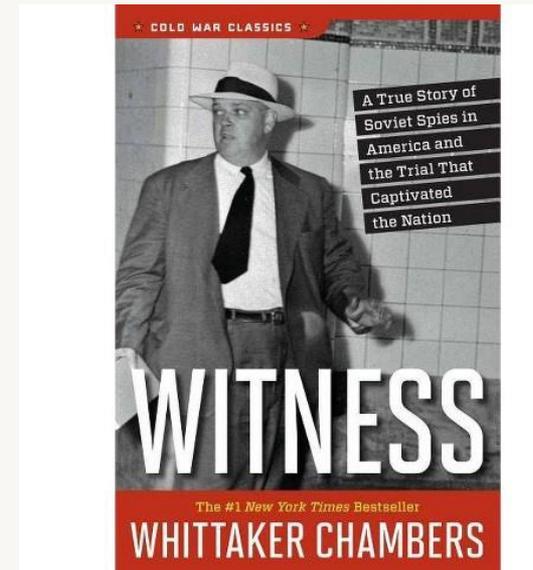


휘태커 챔버스의 ‘증언’

“사회주의는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3:5)’ 라는
속삭임으로 시작된 인간의 두 번째로
오래된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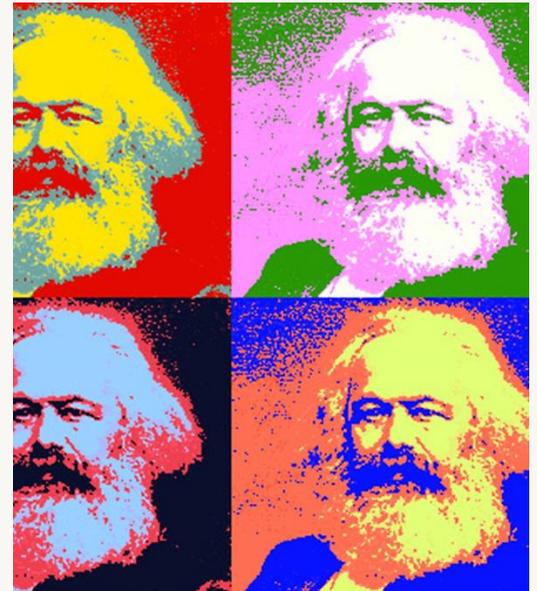
“사회주의는 기독교의 이단(heresy)”
(오레스테스 브라운슨, 폴 존슨)

“Inversion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반전)



문화막시즘

“마르크스주의는 그 원형으로나
문화적 형태로나,
스스로의 거짓 선지자(마르크스)와
거짓 교리(유물론)와
거짓 사도들(레닌, 스탈린, 마오쩌둥,
그람시 등)과
거짓 희망(유토피아)으로 이루어진
기독교 복음의 반전 패러디물”
(로버트 스미스)



마르크스(사회)주의의 실체는?

진리의 뒤집힘 - 역(逆)진리!

非기독교를 넘어 反기독교이자
逆기독교!

“반기독교 종교운동”

하며하며하며하며
하다하다하다하다
선악을삼삼삼삼
을을을을을을을을
악선으로 단것을
암명으로 단것을
흑광으로 단것을
쓴것으로 쓴것을
단것으로 쓴것을
(사 5:20)



(잠언 1장)

내 아들이 악한 자가 너를 쫓더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었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 같이 그들을 산 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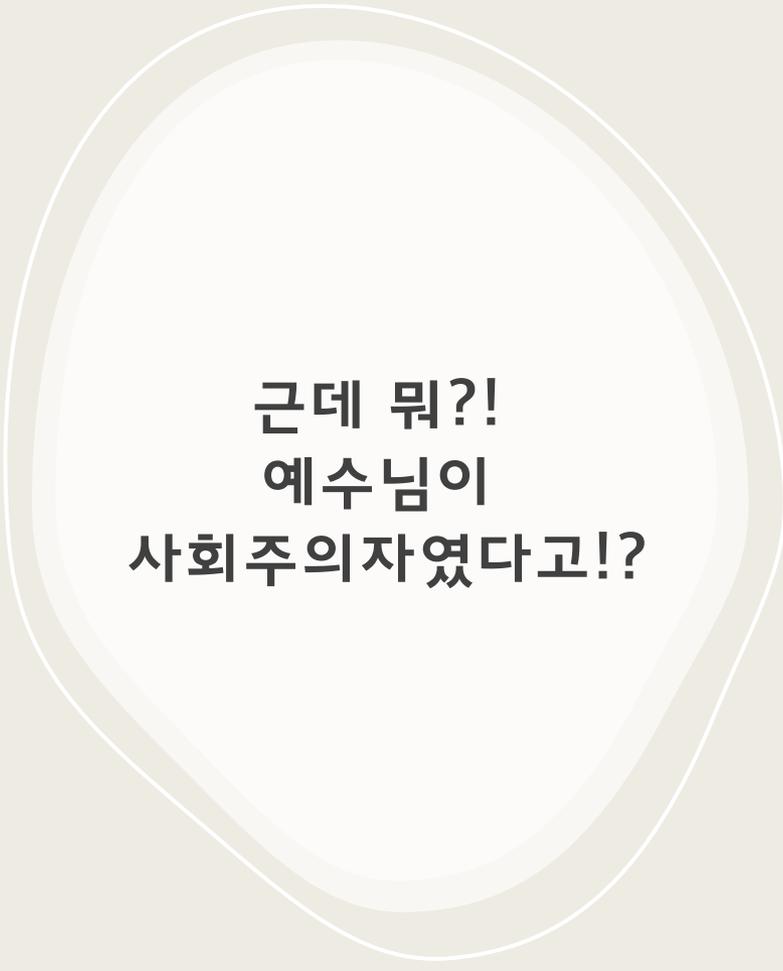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
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이 그들과 함께 그 길에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뭐라고?
huh



근데 뭐?!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였다고!?